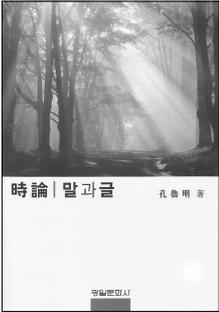


## ■ 時論: 말과 글



(공로명 저, 광일문화사, 477쪽)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이 「時論: 말과 글」 제하의 귀한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책머리에 쓴 ‘自序의 辯’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가 1996년 외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약 15년간에 걸쳐 국내외의 언론에 기고한 시사평론과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등에서 행한 강연과 발표 논문, 그리고 각급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집대성한 문헌이라 하겠다.

저자는 외무부 장관과 외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오랜 기간 쌓은 풍부한 학식과 경험 그리고 특히 남다른 통찰력으로 정세를 분석 평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며, 공직 퇴임이후에도 언론을 비롯하여 관련 학계의 요청에 의한 기고와 강연을 통하여 그 때 마다 저자의 명쾌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저자는 퇴임 후에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한림대학교 특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부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한일포럼 회장, 「Global Asia」 발행인, 세종재단 이사장을 맡아 계속 사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자는 퇴임 이후에도 현직때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과시하고있다. 언론에 기고

한 시론과 대담이나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한 논문과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운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긴요한 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자신의 명성에 걸 맞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 저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71편의 글이 477쪽에 걸쳐 실려진 단행본으로 편집되었으며 ‘기고’, ‘강연’, ‘대담’ 등 3장으로 나뉘져 있다.

‘기고’에는 언론에 게재된 시사평론 등이 국내지 11편과 일본지 18편으로 합계 29편이며, ‘강연’에는 초청 강연이나 학술회의 등에서 행한 연설문과 발표논문으로 36편(한국어 23, 일본어 10, 영문 3편), 그리고 ‘대담’은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록으로 국내 3건, 일본 2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각 1편, 동아일보 1편, 중앙일보 2편, 매일경제 4편 등이며, 일본일간지에는 요미우리(讀賣)신문 5편, 아사히(朝日)신문 12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저자의 명성은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저서에 수록 된 글의 대부분은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안보, 통일문제 및 북한의 핵문제” “한일관계와 독도문제” “동북아공동체” “한미관계와 FTA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 글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저자가 퇴임한 이후에 쓴 것이지만 그 중 3편의 예외가 있다. 즉 ‘강연’편에 실린

“민족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전 단계”(월간 憲政, 1992년 11월호)와 1995년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문, 그리고 ‘대담’편의 “북한핵은 체제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 북한은 국제사회에 안전핀을 뽑았다”(월간조선 1993년 5월호)가 그것이다.

저자는 외무부장관 재직 때 제50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이 책에 함께 게재하였는데 그 이유를 “나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회원국에 호소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 현 이사장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연설을 본 것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저자의 한반도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지론인 보수적인 성향은 현직 때나 퇴임 이후에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 글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으며, 아쉽게도 북한의 태도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두고 보면 저자가 1995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북한의 인권 문제의 개선은 고사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북통일은 더욱 요원해진 것 같고 북한의 핵포기와 6자회담 재개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것 같다.

북한의 개방과 체제 붕괴는 예측이 빗나

가고 오히려 핵무기 생산에 더욱 집착하며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이 중대 고비를 맞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거기에 저자의 퇴임 이후에 특기할만한 현상으로서 남한 내의 일부 좌경세력들이 급증한 결과, 이들이 각 계각층에 침투하여 여론을 오도하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정권 전복을 기도하려는 움직임마저 엿보이는 것이 당면한 우리 주변의 현실임을 미루어 볼 때 저자가 제기했던 제반문제들이 예상외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저자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기고한 시론은 주로 그 당시의 국제정세 중 논란이 되거나 관심을 끌었던 ‘커런트 이슈’의 논평이었으나,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역시 한반도 안정과 관련되는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독도문제와 관련, 저자는 일본 측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질타하기도 했다. 저자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중 저서 27쪽 ‘총체적인 한일관계의 경영을 위하여 -한일관계의 가시인 독도문제-’에서 관련되는 구절을 인용한다.

일본 외무성이나 식자들은 왜, 에도막부시대인 겐로쿠 9년(1616년) 1월 28일, 3년에 걸친 교섭 끝에 도쿠카와 막부(德川幕府)가 조선정부의 항의에 승복하여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고 돗토리번(鳥取藩)에 일본인 도해를 금지한, 유명한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과 메이지 10년(1877년)에 태정관(太政官, 당시의 국가최고기관)이 내린 독도에 관한 지령

을 외면하는 것인가?

일본의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실증적 논거의 전거(典據)가 된 것은 가와카미 켄조(川上健三)의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1966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 이 가와카미의 연구에 대하여 일본인으로서 학문적 매스를 가한 것은 교토(京都)대학의 호리 카즈오(堀和生)가 그 효시인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그는 1987년에 <조선연구회논문집>에 기고한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중략)

위에 언급한 태정관 지령은 1876년 시마네 현이,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내무성에 품의했을 때, 내무성이 검토한 결과 울릉도와 죽도(竹島)와 그 외 1도는 에도시대의 경위로 보아 ‘조선 령이며 일본 땅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도(版圖)의 취사(取舍)는 중대사건’임으로 1877년 3월 17일 당시 최고의 국가기관이던 태정관의 판단을 양청하여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1950년대 한일 양국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조선 령으로 인정한 것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이지 마쓰시마(松島)가 아니었다고 일본 측이 강변한 일이 있으나, 내무성이 품의한 서류에는 위의 ‘다케시마’ 외 1도는 마쓰시마(松島, 지금의 다케시마)임을 지도에 명시하고 있다. (호리논문 p.10)

저자는 이 밖에도 ‘에도막부의 다케시마 도항금지조치’라든지 ‘다케시마 명칭의 혼용’을 문제 삼는다든지 일본 측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문헌인 “은주시청합기

(殷州視聽合記)”의 기사를 분석하여 일본 측이 제시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논리를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정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저자의 충정어린 애국심을 바탕으로 이 저서에 제시한 주장대로 한반도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그리고 남북한 통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일본과는 21세기를 향한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며, 한미동맹과 FTA 문제 역시 순탄한 제자리를 잡아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해야 할 것이다.

이 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다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필자가 서평을 쓰는 것 같아 저자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 시평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대담’의 마지막 편에 실려 있기에 소개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문화 유적답사에서 ‘곡부’의 공자 묘를 방문하였기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즉 2005년 9월 아사히(朝日)신문 와카미야(若君啓文) 논설주간과의 “동아시아 화해의 열쇠는 논어에 있다 - 孔子 후손의 대담”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저자는 ‘孔子家門의 제79대손’임을 밝히고 있다. 이 대담에는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1985년부터 일본에서 유학하고 ‘차이나 뉴스 드라곤’지의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공건(孔健, 공자의 제75대손)씨도 함께 자리하였다. 대담 가운데 저자의 독특한 얼굴이 공자의 모습과 많

이 닦았다는 점을 공건씨가 언급했는데, 저자의 학식과 인품이 오버랩되어 재미있게 읽었다.

끝으로 이 저서가 비록 저자의 퇴임 후 여기 저기 기고한 글들을 모은 문집이라 할지라도 향후 단지 하나의 고문서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저서에 담긴 저자의 주장

과 판단처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의도대로 잘 해결되어 먼 훗날 차세대들이 이 책을 보고 '공로명 전 장관이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관료이며 학자였구나' 라는 평가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 주 세네갈대사 유종현) **외교**

## ■ 어느 외교관의 비망록



(윤하정 저, 기파랑, 360쪽)

“기록이 없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도전과 시련의 외교 현장에서 보고 겪은 애환은 외교관들의 것 만은 아니다. 금년에 미수(米壽)를 맞은 윤하정 대사가 혼란과 격동기의 한 평생을 지내면서 직업 외교관으로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던 ‘특수한 사건’ 들과 시평을 정리, 출간하여 우리 외교사의 이면을 단순한 자료 이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90세(卒壽)에 이르는 연세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탐구 열정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지금도 등산과 골프로 단련하는 그의 건강관리는 경탄할 만하며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후배들에 대한 삶의 교훈이기도 하다.

90세(卒壽)에 이르는 연세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탐구 열정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지금도 등산과 골프로 단련하는 그의 건강관리는 경탄할 만하며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후배들에 대한 삶의 교훈이기도 하다.

윤 대사는 1955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뒤 20세기 후반의 냉전기와 남북관계의 변혁기를 외무부에서 보내면서 정보문화국장, 구미국장, 주불, 주일공사, 주스웨덴, 주 호주, 주 네덜란드대사, 외무부 차관 등 본부와 해외의 요직을 두루 거쳐 그의 외교관 생활은 그 자체가 역사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저자가 격랑의 외교관 시절 직접 겪고 보았던 사건들 중 일부 발췌한 대형 외교 사건들 - 동 베를린 사건, 북한 특공대 침공과 푸에블로호 사건, 월남 패망과 한국 외교관 석방 교섭,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대통령 저격사건, 박동선 사건- 과 그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어 세상에 알리고 있다.

저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역사적인 외교 사건에 대응하여 입안, 교섭, 해결함에 있어서 예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추진력 그리고 상대국가 외교관과 맺어왔던 남다른 친화력으로 외교사에 남을 만한 공적을 세웠음을 이 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1967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혐의를 받은 재독 교포들의 귀국 조치 및 재판에 회부된 '동백림 사건'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항의하며 관련자 전원의 석방과 귀독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독일 정치권 및 각계의 항의와 여론이 비등하고 대한 경제 원조 중단 조치와 국교단절까지 압박하는 사태로 확대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저자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각종 외교사례와 국제법 판례를 연구하고 정부 관련부서간 합의와 상부 재가를 통하여 '선 재판 후 정치적 해결'의 수습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원칙과 교섭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긴장된 고비 고비를 단계적이며 다각적인 외교교섭으로 극복하고 독일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국면에 적절히 대응하며 조속한 사건 타결에 임하였다.

결국 독일특사 방한을 이루어내어 '한국내 재판을 종결한 후 전원 감형과 석방, 귀독 허용' 한다는 절충선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1년 6개월간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로서 한국으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자국내 '재판관할권을 수호'하는 한편 북한의 재독 한국 국민에 대한 접근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독일로서는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주권을 복원' 시킴으로서 상호간의 입장과 이익을 존중하는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2) 1968년에 발생한 무장 특공대원의 청와대 기습 공격 시도, 미 해군 푸에블로호 불법 나포, 울진과 삼척에 대한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행위는

남·북간에는 휴전 이후 최대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한·미 군사 동맹에도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저자는 실무 책임자로서 군사적 대북 제재와 보복적 행동을 자제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의 대한 군사 원조와 협조체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대미 교섭계획안을 수립하여 1차적인 무력 충돌 위기를 넘기고 단계적인 대처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침공 행위 규탄과 재발 방지보장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한·미 간에는 동맹체제의 제도적인 재정비와 한국군 군비 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미·북간의 비밀거래 가능성과 대북 유화조치 불용, 미국 특사의 방한통한 외교교섭, 양국 정상회담 등 미·북 및 한·미 간 약 2년여의 협상 끝에 푸에블로호 승무원이 석방되고 한·미 간에는 미국 군원의 증강을 통한 강력한 한국 군사력의 구축과 군의 현대화 계획을 실현하는데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저자는 "이렇게 양성하고 발전된 한·미동맹의 힘이 바로 그 후의 북한의 남침을 결정적으로 저지하고 오늘날 한국의 안정과 안전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3) 저자는 1973년 8월 주 일본공사로 부임하면서 '김대중 납치사건'을 겪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주권침해를 당한 민족적 굴욕감'에 반한 감정이 광적으로 번지고 있었다. 일본정부 및 정계는 한국정부의 진사 및 김대중씨의 일본 재

입국 조치와 납치 하수인으로 지목된 주일 참사관 등 한국내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구하며 외교관계 단절도 불사한다는 초강경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자는 최일선 책임자로서 일본 외무성 측과 다각적이고 끈질긴 접촉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한 감축과 현실적인 위기감을 외교부 본부에 지적하며 이 문제를 외교 정치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책이라는 건의를 상신하였고 양국 간에 총리회담이 성사됨으로서 미증유의 납치 사건은 종결되었다.

(4) 1974년 광복절, 재일 조총련 교포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 실패와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은 1년 전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때와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였다.

저자는 먼저 NHK의 황당한 왜곡 오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내 준(準) 북한기관으로 반한운동의 기지역할을 하여온 조총련 본부와 조선인 학교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내의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측의 항의, 양국간 감정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무성과 우여곡절의 줄다리기를 교섭과 진통 끝에 양국간의 긴장과 감정의 대립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타결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총리 특사의 방한을 실현시킴으로서 일본측의 사과등 우리측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관철하고 양국간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5) 저자는 외무차관 재임중에 1975년 사이공이 월맹군에 함락되면서 마지막까지 출국하지 못하고 잔류하게 된 3명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석방교섭을 직접 수행하였다. 이들 외교관은 정치적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월맹의 고문과 북한의 협박 및 신병인도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저자는 우방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석방교섭을 추진하고 한·월·북한 3자간의 비밀 회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외교관과 남한에 억류중인 소위 혁명투사와 교환 석방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무산시키는 등 무수한 고비를 넘겼다.

이후 스웨덴대사로 부임하여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5년 가까운 끈질긴 교섭 끝에 한국 외교관 전원을 극적으로 석방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프랑스와 스웨덴 외무성 간부간에 과거 근무지에서 맺었던 두터웠던 친분 관계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6) 미 의원들에 대한 수회의혹 사건인 '박동선사건'으로 한·미 관계가 격랑의 소용돌이를 치던 1976년에 저자는 외무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정부의 관련설이 제기되고, 주미 대사관 직원 2명의 망명과 한국정부 개입 허위 진술로 곤혹스런 형편에 직면해 있던 중 미국기관의 청와대 도청에 의한 청와대의 미 의회 로비활동 연루포착 기사 보도로 외교 분규를 겪게 되었다.

외교교섭과 조정으로 분규를 일단락

짓고, 이어 임시수사공조 협상을 통해 박씨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방한 심문도 이루어졌으나 미 의회는 박씨 및 사건 연루자들이 미 의회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식량지원 및 군원 삭감과 주한 미군 일부 철수를 연계, 압박을 가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박씨 등 혐의자가 미 의회에 자진 출두하여 청문회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힘으로써 그간 한국 정부가 개입된 것으로 왜곡, 과장 보도된 혐의들은 일개 외국인의 로비등록법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다.

이어 박씨도 완전히 면책되고 연루자들의 혐의도 해소됨으로서 2년 가까이 외교적 진통을 겪었던 한·미 간의 최대 현안에 종지부를 찍고 격동의 양국관계도 완전 정상화를 이루었다.

저자는 이상에서 소개된 여섯 가지의 외교사건 교섭에 직접 참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국간 외교통로를 통한 현실적 상호이해와 평소 외무성 간부들과 맺어온 인적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통감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제2부는 공직을 떠나 은퇴생활을 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정치 외교사에 남을 주제들에 관하여 시평 모음으로 정리하였다.

저자는 ‘세기말 격동을 바라보며, 신세기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한국 안보와 통일, 냉전 구조 붕괴와 독일통일, 중국과

아시아 안보, 북핵과 6자회담, 한·미관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14종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운명과 함께 추이되어 온 세계정세와 우리나라 대외관계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개관하였다.

저자가 지적하였듯이 오래 전에 기고했던 글들은 세월이 지나 대부분 시사성이 없어지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현실에서 진단하고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현실 문제로 존재하고 있어 시대를 내다보는 저자의 식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원치 않게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은 “북한이 주도한 공작의 독수(毒手)가 직·간접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북한이 상투적인 무력협박과 국제사회에 대한 유화 제스처어를 수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외교술수에 한국외교는 의연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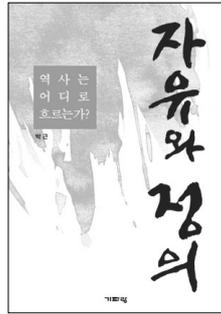
저자가 걸어온 길과 경험은 약소국가라는 배경과 한계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우리 외교관의 대변이요, 시대의 진운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취급한 몇 가지 외교적 분규의 예(case)는 우리나라 외교 분규의 해결 전례로 하나의 case study 자료로서 후진들을 위한 좋은 참고가 될 것이요, 일반인의 외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후일의 역사조명에 귀중한 사료가 되리라 믿는다. (전 주 피지대사 문병록) 

## ■ HIBISCUS / 자유와 정의(박근 저)



(랜덤하우스 講談社, 279쪽)



(기파랑, 180쪽)

### 행동하는 지성인 박 근

박 근 대사는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데 이어 외교관으로서 국제안보, 인권, 자유민주주의, 국제경제 등 수 많은 분야를 두루 섭렵한 분이다. 또 그는 청년기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형적 지성인이다.

이 분의 최근 저서인 영문 회고록 「HIBISCUS」와 「자유와 정의」는 우리가 이념과 언어의 혼란에서 벗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강요 받아온 학생, 젊은이들이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근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기의 박 근

박 근 대사는 6·25 북한공산군이 남침하자 곧 학도병으로 지원한다. 학업을 끝

낸 후에는 또 다시 해군장교로 입대한다. 두 번 군에 복무하면서 직접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학살만행을 보고 그는 확고한 반공주의자로 거듭 태어났다.

펜실베니아대 재학중에는 보수주의 연구에 몰두해, 에드먼드 버크가 칼 맑스 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상적 거인임을 깨닫고 보수주의 신념을 갖게 된다.

박사학위 시험에서 그는, “버크가 지적한 대로 인간은 천사들이 아니므로 낙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 공상가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낙원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세기에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전략하지 않았는가. 공산주의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규범, 편견,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인간에게는 결국 본능과 충동만 남게 되고 중국에는 야수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A’ 학점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명문 와튼스쿨 전임강사가 된다. 그때 양유찬 대사가 ‘조국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에게 천거하여, 그는 여유롭고 윤택한 미국 명문대교수의 길을 접고,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귀국한다.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항의사직서를 제출해 장 면정부에 의해 ‘반혁명분자’라고 몰려 해직되고 다시 교수직을 택했으나, 5·16 혁명 후에 정부(외무부)는 그를 재기용한다. 그 때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임을 보여주었다.

## 이승만, 박정희 시대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끊어지지 않는 두 개의 물줄기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 이성의 산물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다. 자동차, 항공기, 전화, 컴퓨터와 같이 과학·기술은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더 자유롭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 다른 하나의 물줄기는 더 강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정치와 사회제도의 발달이다. 정치는 개인을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역사는 더 높고 자유로운 인간의 위상을 향해 전진해 왔다.”

저자는 4·19혁명 후 과도정부 허정 정부수반(대통령격)의 외교보좌관 자격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처음 만난다. 그 때 이 대통령은 “선거에 불법을 저지른 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당시 부정선거가 이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건국하자마자 즉시 토지개혁을 단행해 ‘반자유인’, 문맹인으로 살아오던 수많은 소작인들에게 헐값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다. 재산권은 자유를 신장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남북전쟁 후에 링컨대통령이 무산계급에 무상으로 토지를 배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이끌어내 공산침략을 격퇴하고, 6·25전쟁 중에도 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어린 자유민주주의”를 살렸다. 또 피난지에 학교를 지어 전쟁 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대학에는 원자력학과를 신설한 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최첨단과학을 발전시킨다. 격렬한 전쟁터를 방문해 이승만은 행동으로 국민마

음을 사로잡고 감동시켰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은 기아상태에서 탈피하고 세계 최빈국 신세를 면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는 전무후무한 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한 데 이어, 대덕 종합과학기술단지도 만들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이 완전히 자리잡고 원자력, IT산업도 시작되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 한국은 최빈 농업국가에서 갑자기 고도산업국으로 변신하고 개인소득은 급증했다.

박 근 대사는 이 시대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의 영도력은 크거나 강한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가 일으킨 ‘신바람’은 권력을 자제하고, 기업인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발 벗고 뛰게 만든 그의 신비한 카리스마에 있고, 개인을 억누르지 않고 복돋아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지도자의 열정에 보답하려는 개개 국민의 분발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이룬 기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최근 「박정희 시대」를 출간해, 박정희는 강력한 비전과 엄청난 애국심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등소평과 함께 아시아를 근대화시킨 두 명의 인물이라는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 자유민주주의의 ‘동아시아 모델’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인정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권력분립과 법치질서를 이룬 후에 정치제도를 민주화하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동아시아 모델’은 유럽모델을 따른 것이다.

저소득 빈곤국가에서 시기상조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모두 실패하고 독재국가나 혼란한 최빈곤으로 전락했다.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은 아직 반봉건, 반민주국가로 남아있다.

중남미에서 동아시아모델을 답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이다. 공산주의 붕괴 후에 소련도 자유민주주의를 ‘인류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였으나,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개인소득 5,000불 이상인 터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 7~8개 국에 불과하다.

#### 외교관으로서 처녀 연설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1963년 11월 텍사스 웨일랜드 대학에서 한 “한국국민의 목표”라는 연설은 “그 날의 가장 중요한 연설(Vital Speech of the Day)”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 교황 폴 6세, 드골 대통령 연설과 나란히 선정되어 출판된다. 한국인으로서의 초유의 일이다.

“..... 우리는 정치적 안정이 자리잡기 전에도 수많은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 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또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빈곤국에서 국민 머리에 갑자기 세련된 정치 시스템을 씌워주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방식과 절차가 미국의 복사판이 되리라고 미국인들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른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서 그 운영과 절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본요건,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되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국가다. 요컨대, 우리 한국 국민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통일, 역동적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근 50년 전의 일이다.

#### 새마을운동 수출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줄이어 공산화된 후, 약 10만 명 주민의 지원 속에 1만 명의 공산계릴라가 준동하고 있는 태국도 공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 때 태국 국민의 절대적 추앙을 받는 국왕은 전국 각 지방을 순시하며 자애를 베풀면서 각종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었다.

태국 공산화 여부는 농촌개발에 달려있으므로 박 대사는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을 옮겨 심어주려고 심혈을 기울인다. 태국 각 지역 농촌지도자들에게 새마을운동 영상물을 관람시키거나, 방한 초청하기도 하고 각 사무실이나 식당 그리고 방콕 광장에 모여 새마을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불렀다. 각 장관의 지방유세에도 따라가 새마을 노래로 흥을 돋우기도 했다.

이렇게 태국에 수출된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부터 동남아를 거쳐 중남미, 아프리카로 지금까지도 계속 번져 나가서, 현재는 100개가 넘는 대다수 개도국들의 농촌개발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 다자 외교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인근에서 소련 전투기의 KAL007기 격추 만행 후에 우리의 외교활동은 주로 국제민항기구(ICAO)

가 소재한 몬트리올에서 벌어졌다.

사건직후 4주 이상 ICAO이사회와 총회에서 박 대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외교활동을 벌이며, “폭력사용을 용인하고, 미화하는 것이 소련 공산정권의 특성이다”고 규탄했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은 ‘악의 제국’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차기 회의에서 ICAO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 하는 강력한 결의를 채택했고, 이 사건으로 소련은 몰락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1985년 제네바에서 GATT(WTO전신)는 박 근 대사를 전원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한다. 핵심 국제기구 의장직을 유엔회원국도 아니던 한국에서 맡은 것은 매우 특이한 초유의 일이었다. GATT 이사회 의장이 되기까지 그가 맹활약하면서 개발한 다자 외교활동 수칙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줄 것이다.

(1) 최대한 많은 회의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기회 있을 때마다 발언할 것

(2) ‘논리(logic)’ 뿐만 아니라 회의장 분위기를 밝게 하는 유모어를 활용할 것

(3) 중요한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표를 내겠다고 천명할 것”(“resign-pack-up-and-go-home” card 사용)

(4)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비외교적 행동(예; 책상을 쳐서 물컵이 쏟아지게 하기)’도 불사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

그의 유모어 하나를 소개하자면, “예전에 중국에 호랑이가죽을 조공으로 주었는데, 긴 로프 끝자락에 토끼를 매달고 참기

름을 듬뿍 발라두면 호랑이가 와서 꿀꺽 삼킨다. 미끄러운 토끼가 위를 통해 항문으로 빠져 나오면 다른 호랑이가 또 삼켜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가 있다. 요즘 소위 반덤핑 코드(code)는 선진국이 개도국 수출품을 잡기 위해 고대 한국의 호랑이잡기 코드(cord)를 흉내 낸 것이다.”

‘사임 카드’를 써야 할 때는 물론 진실성이 없거나 허세(bluff)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그의 경고는 매우 적절하다. 진실되어야만 동료 외교관들은 실직방지 해결책을 모색해 준다.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를 폭파해 탑승자를 모두 살해한다.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긴 박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분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니체’가 경고한 대로, ‘괴물’과 싸우면서 우리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표명한 데 반해, 북한대사는 ‘미국이 저지른 짓’이라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해 모든 청중의 조롱을 자초했다.

#### 시민운동가 박 근

우리 인구의 4~5% 정도는 좌파사상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한미군철수를 목표로 오랜 기간 일반대중의 반미감정을 부추겨왔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데모 벌이를 만들어 내고, 작은 시위를 키워서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한다.

일본 점령기의 경찰통치 때 지울 수 없는 증오가 남아 있어 우리 국민은 자국 경찰의 무력진압조차 싫어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인기영합주의 정권들이 들어서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나치게 견제하는 실정이어서, 우리 경찰은 기백 빠진 '비폭력 경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데모공화국'이 된 상황에서 좌파 데모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항데모'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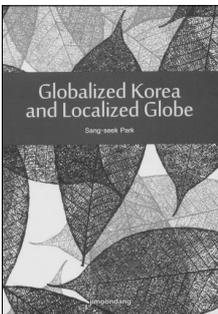
시민운동가 박 근은 동지들을 규합해 1997년 '개혁보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자본주의, 자유·평화통일' 4대 목표를 내걸고 '맑고 힘찬 나라인동'을 시작한다. 이 단체는 광고를 통해 선거에서 '청렴한 반공·민주주의 신봉자를 선출' 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고, 반미·좌파 데모에 대항하여 꾸준히 한·미동맹, 주한미군 지원데모를 감행한다. 그들은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와 자유·번영의 대들보라고

확신한다.

반미감정을 부추겨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정권 시절 용산, 평택 미군기지 부근에서는 자주 '미군 철수' 데모가 이어지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었다. 그때 시민 박 근은 보수주의 동료들과 함께 대응 데모를 주도해 끈질긴 좌파데모의 광기를 여러 번 꺾었다.

2008년 8월 한미우호협회, 재향군인회 등 20여개 보수단체회원 3만명 이상이 시청광장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 '방한환영대회'를 열어 대형 풍선도 띄우고, 초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즐거운 함성이 서울 장안에 울려 퍼지게 했다. 이날은 데모전에서 보수주의가 크게 승리한 날이었다. (한미우호협회 부회장, 전 주 베트남 대사 조원일) **외교**

## ■ Globalized Korea and Localized Globe



(박상식 저, 지문당, 336쪽)

우리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세계화'는 20세기 3/4분기에 개시되어(2쪽) 960년대 중엽부터 전례 없이 격화하고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데(41쪽),

지난세기 말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세계화 관련 서적이 무려 5천종을 상회했었다고 하니, 아마도 그 후 지금까지 발간된 누계는 1만여 종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어느덧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어, Tomas Friedman의 "세계는 평평하다(World is Flat)"에 나오는 Bangalore 같은 도시가 세계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오른 현상이 담론을 형성해온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현대 사회(post-modern society)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어느 곳에 살거나 그곳이 어떤 면에선가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세계인(global citizens)은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직장, 지역사회나 국가에 관계없이 항상 직접 혹은 또 다른 세계인을 통하여 전 세계와 상대하는 것이다. 세방화의 정의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으나,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것”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볼 때 더욱 더 그렇다.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지낸 박상식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의 저서 「Globalized Korea and Localized Globe」(세계화된 한국, 지방화된 세계)에 실린 칼럼들의 공통된 담론 역시 세계화시대에는 국내적 문제, 지역적 문제 및 세계적 문제가 긴밀히 뒤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순수한 국내문제에 불과한 사안도 지역문제나 세계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iii쪽)라는 저자의 통찰력을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초현대사회가 보편화함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저자는 본서의 발간에 즈음한 보도 자료에 우리말 제목을 “지구화된 한국, 지방화된 지구”라고 붙였으나, 여기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정착된 ‘세계화’ 그리고 ‘세계’로 부르기로 한다.

1934년생인 저자는 서울대학교 영문학

과를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3부(외무)에 합격한 후 도미, 명문 앰허스트대학에서 정치학사와 매서츄세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햄프턴대학교에서 10년간 교수생활을 하다가 1979년 외교안보연구원 제3연구부장을 거쳐 연구실장으로 10년간 재직하였다. 또한 주 보스턴총영사, 주 유네스코대사 및 주 싱가포르대사를 차례로 역임한 후, 2000년부터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으로 봉직하였다.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판된 본서는 저자가 1999년 11월 19일자 Korea Times에 기고한 칼럼 1편과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9일까지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 71편을 묶어서 펴낸 것이다. 세방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북핵문제, 6자회담, 남북한 관계, 주변4대국 관계, 미국의 외교정책, 아태지역 정세, 동아시아 지역주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경제 질서, 세계적 문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수록된 72편의 칼럼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기고일자 순으로 나열하였다.

일찍이 「아프리카 외교정책」, 「제3세계 정치」, 「국제정치의 이해」 등의 저서로 냉전시대와 그 이후의 국제관계에 관한 혜안을 마음껏 과시한 학자이자 외교관이요, 외교관이자 학자인 저자의 품모가 물씬 풍기는 서적이다. 우리 모두가 ‘박상식 따라하기 운동’을 벌려, 영어로 부지런히 글을 쓰고 이를 축적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일이 항간에 유행처럼 번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한다.

만 76세의 저자가 금년 초 서문의 말미에 “나의 지적 부유”라고 내세우는 당당함(vi쪽)은 만인의 부러움을 사기 마땅하며, “나는 죽을 때까지 글을 쓰겠노라.”라는 결심(vi쪽)은 본서를 읽는 모든 이의 뇌리를 쫓하게 올리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특히 한국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자, 사업가 등에게 유용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 초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요약하고 저자 특유의 분석과 정책제언을 가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60. A New Asia Initiative or a New Asia-Pacific Initiative?”(265~269쪽)이나 “64. Can President Lee Straddle between Continent and Ocean?”(287~291쪽), “64. Global Korea: a Grand Strategy for a First Class State”(305~308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이를 위한 외교전략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타 독자들에게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요 분석가로서 저자의 관점을 시계열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72개 칼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집했었다면 각자가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읽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더욱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증보판이나 속편은 그렇게 재정리해서 출판하기를 고대한다.

저자는 세방화의 진전이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힘과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 1648년 시작된 소위 웨스트팔리안 체제인 현행 국가

중심 체제가 궁극적으로 세계중심 체제(globe-centered system)로 변모할 것이므로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환경 및 경제 질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전망에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느 시점이 양 체제의 분기점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시대구분은 후대 사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것과 같이, 많은 나라가 초현대화한 오늘 그렇지 못하는 나라도 여럿이어서 과연 언제부터가 초현대인지 시대구분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열린 민족주의’(또는 ‘개방적 국가주의’; open nationalism)에 대한 확신(1~5쪽, 10쪽, 307쪽)은 우리를 새삼 놀라게 한다. 미래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자랑해온 배달겨레가 앞으로 300년 뒤에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통일을 이루고 제2의 독일로 부상하여 소위 코리언드림을 세계적 시대정신으로 각인한다면 한반도는 다민족의 용광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전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국적인 것”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입하고 체득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소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이제

우리가 창조하고 각국에 보급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경로사상이나 충효사상과 같은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갖가지 시책의 정신적 기저를 이루는 가치관도 우리가 창달하여 세계화할 과제다. 이와 맞물려, 민족소멸의 가장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될 세계최고의 자살률로부터 벗어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국인의 삶’ 자체가 이른바 롤 모델이니 벤치마크니 하는 세계적 기준이 되고 한국은 그 원산지, 즉 원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개인의 자살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히 당면한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다음 칼럼이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고도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기 기대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비민주성에 관한 칼럼 “7. American Democracy as an Underdeveloped Form of Democracy”(27~30쪽)에서 저자는 Samuel Huntington의 제4기 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를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4반세기 뒤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하게 될 것이니, 이 두 나라 국민의 투표권과 구매력이 세계정치에 그대로 투영되어 직접민주주의와 완전한 시장경제가 실현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상상해봄직 하다.

저자는 또한 “8. ASEM as a Dialogue of Civilization”이라는 칼럼(31~34쪽)에서도 유라시아문명의 창조를 주창하고 “Lessons from the War against Terrorism”(39~42쪽)에서도 역시 남북한 간 분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물학적·문화적 정체성이 인간적 정체성(human identity)로 전환되어야 한다(236쪽)거나 한국문화가 사해동포의(cosmopolitan) 문화로 승화되어야 한다(308쪽)고 주장하고 있어 마치 먼 이상향을 꿈꾸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66. Seeing the World through the Haitian Disaster”(297~300쪽)에서는 세계화시대에는 웨스트팔리안 체제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면, 인류가 인재(人災)를 예방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4. What is to be Done for Peace in the 21<sup>st</sup> Century”(105~108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집단이나 종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세계(globe) 및 인류(humankind)에서 찾고, 모든 종교가 대타협을 이루어 각자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결국 개인이 신에게 가까워질 것이므로, 21세기에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나라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런가하면 한미동맹에 관한 현실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2. Why Does South Korea Need Self-defense Ability”(95~98쪽)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어느 편에게 더 이익을 주는 것인지 하는 논쟁은 현실적이 아니고 학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3. A New Regional Order Emerging in the Asia-Pacific”(99~103쪽)에서도 미국만이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으로 파트너보다는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25. Should South Korea Move Closer to China than the U.S.?”(109~112쪽)에서도 우리에게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26. Time to Revisit the Korea-U.S. Alliance”(113~116쪽)에서도 장기적으로 주변강대국에 대응하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71. China and North Korea vs. the U.S. and South Korea”(317~320쪽)와 “72. China and North Korea vs. U.S. and Israel”(321~324쪽)에서는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의 주종관계에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달려드는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미간 직접협상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67. North Korea in a State of Emergency Again?”(301~304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와 ‘실패한 국가’로부터 정상적 국가로 전화시키려는

지난 15년간의 노력이 북한의 생존을 도왔음을 지적한다.

본서는 통일, 외교, 안보 및 국제정세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를 평이한 문장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외교관 및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게 더욱 널리 읽히고 영어 학습을 위한 교재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해본다.

더구나 Korea Herald 2009년 5월 9일자 칼럼 “59. The World Civic Forum: Between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World Social Forum”(261~264쪽)이 Richard Mansbach 및 Edward Rhodes 공저의 미국 대학교과서 「The Globalization Reader」에 실릴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신국판 양장으로 정가 23,000원에 출판된 이 서적을 앞으로 소프트카버 문고판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면 가격이 대폭 하향 조정되어 책을 여러 차례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서가 작년 8월까지 발표된 칼럼을 모으고 금년 1월에 서문을 붙여 4월 말에 출판되었으므로, 여기에 최신 칼럼을 추가하고 권말에 친절한 색인을 덧붙여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주 우루과이대사 김재범) **외교**

## ■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 영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서용현 저, 대명출판사, 313쪽)

요즈음처럼 소통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도 드문 것 같다. 여당의 정권이 원만히 운영되지 않거나,

선거에 패배하면 정치적 지도자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연쇄 자살사건이나 어떤 집단 대상으로 증오를 폭발시키는 막가파식 충격사건이 터지면 흔히 매스 미디어는 사건의 당사자나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소통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는 진단에 우리는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집단과 집단 간의, 국가와 국가 상호간의 진정한 소통도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20여 년 간의 외교관 생활을 거친 후, 전북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용현 교수가 이러한 소통을 주제로 한 참신하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는 제목에 ‘영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다.

저자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한 외국인과의 대화방법, 사교의 룰, 외국인의 신뢰를 얻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서한 등을 통해 외국인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법에 천착하고 있다.

저자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위해 역사상 소통의 달인들이라 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 링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등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문 서한을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그 비밀을 밝혀내고, 외교통상부 재직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보의 스피치 라이터로서 저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유려한 영문 글들과 저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과 교신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던 그의 개인적인 여러 영문 서한들을 사례로 하여, 그러한 글들의 의도와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있어 더욱 생동감을 주고 있다.

저자는 영문글의 작성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야말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려의 방법으로서 저자는 외국에 근무할 때마다 그 나라의 이름으로 된 별명을 반드시 사용했음을 예시하고 있다. 스페인어 지역에서는 호세, 프랑스에서는 시라노, 태국에서는 솜삭, 러시아에 가면 이반, 미국에 가면 하비(Harvey: 촌스러운 이름) 등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발음하기 어려운 우리 이름 때문에 외국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first name인 이러한 이름을 상대방이 친근하게 부르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여주는 것인가! 재미있는 발상이라 하겠다.

또한 현지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에서 현지국의 국가를 적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국가의 합창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열심히 부르든가, 그 나라의 유행가도 몇 곡 카드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현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을 위한 기본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부터 5장까지에는 ‘서한에 의한 소통’, ‘편지 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소통을 통한 친구 만들기’ 등 소통을 위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3장~5장의 내용은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귀중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서평자에게는 1장~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가슴에 와닿고 더욱 감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물론 1장~2장은 3장~5장에서 다루어지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들이기도 하다.

첫째, 저자는 장구한 인류사에서 인간관계 또는 국가관계의 기초는 투쟁이었으나 상호의존과 무한경쟁이 함께 가는 오늘날에는 편가르기 식의 ‘힘의 동맹’은 시대착오로 전락하고 국경을 넘어서 관계를 맺으

면서 협력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투쟁이 아니라 ‘관계’가 생존과 번영의 방식이 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이기려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상호의존의 시대에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기 쉽다’ 즉 우리는 윈윈(win-win)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저자는 성공의 조건은 변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과거 학생들이 학벌, 성적, 외국어, 자격증 등 스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역량과 소통의 시대가 왔다고 단언한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이다. 시험에 파묻혀서 살던 시험 벌레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펙이 빈약한 학생들은 창의나 인간관계 등 새 시대에 떠 오르는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시험 엘리트들보다 앞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구 시대의 잔재인 스펙에 전력투구하는 과정에서 ‘진짜 역량’을 쌓을 기회를 놓친다고 경고한다. 새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역량이란 ‘전인적 역량’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경험, 독서, 창의력과 상상력, 인간관계와 소통, 열정, 긍정적 태도, 용기와 자신감 등이 ‘전인적인 역량’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일류대학을 나오고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젊은 독자들에게 스펙에 의존하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유의

한 충고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해 주고 있기에 더욱 신선하고 신뢰감을 준다.

셋째, 저자는 소통의 궁극적 실천 철학으로서 ‘인내천’(人乃天)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의 인간관계’의 실천원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상대를 경멸하거나, 불신하거나, 속일 수 있겠는가? 역으로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미워할 수 있겠는가? 인내천은 인간관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친구로 만드는’ 궁극적인 비결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지는 오늘의 세계에

서 인내천 사상은 소통의 정수이며, 네트워킹과 성공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상대를 하늘같이 본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덕목이다. 상대를 하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 이들 세가지 마음 가짐은 겸손과 함께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열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자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현역 외교관들의 필독서로서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다. (전 주 브루나이대사 사부성)

**외교**